

병원도서관 운영실태 분석 연구

Analysis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ospital Library

신영지 (Youngji Shin)*

노영희 (Younghhee Noh)**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국내 병원도서관의 정책 및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을 통해 수집된 73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병원도서관은 모기관에 의해 설립되기 보다는 타 기관(재단, 기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다수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특정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간의 경우, 단독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타 목적 공간 내 서가 배치 및 개방형 휴게실, 복도 벽면 등에 서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이 없는 곳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서의 경우 설립 당시 지원 받은 도서를 유지할 뿐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있는 곳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출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domestic hospital libraries, the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for them, an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m. To this end, a list of hospital libraries was established and the operation status was investigated by conducting telephone interviews with 73 libraries colle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ospital libra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support projects of other institutions (foundations, enterprises, etc.) rather than by the parent institutions, most of which were barely maintained except for certain actively operated ones. In terms of space, hospital libraries equipped with independent space were mostly operated on a small scale, and bookshelves were deployed in space for other purposes such as lounge and hallway. In terms of operation, a dedicated department or personnel for the library operation hardly existed, and more than half of them did not purchase additional books, simply maintaining the donated books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It was also shown that for services and programs, only booklending services are provided, except for a few libraries. Therefore, national policies and support will be needed to revitalize hospital libraries in the future, and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operate them through links with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키워드: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운영실태

hospital library, patient library, hospital patient library, operating statu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ee910125@gmail.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9년 11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 2019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2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36(4), 21-52,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4.021>

1. 서 론

미국 병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단체 Reach Out and Read(ROR)는 1989년 보스턴 시립병원을 시작으로 6살 이하의 아이와 그 부모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의료계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산재한 6천개 이상의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참여를 통해 매년 470만 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백원근, 2019; ROR 홈페이지).

또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의료기관 평가(Best Hospitals Honor Roll)에서 1등을 차지한 마요 클리닉(Mayo Clinic) 병원의 병원도서관을 살펴보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 잡지, 오디오북, DVD, 보드게임과 컴퓨터 이용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카트에 도서를 실어 병실을 찾아다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백원근, 2019; 연합뉴스, 2018).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병원도서관 설립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 건강정보전문가, 의학전문사서, 건강교육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원 제공, 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영, 2019b).

이처럼 미국 병원들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독서와 소아과 치료의 통합, 도서 제공, 건강정보 제공, 건강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병원도서관을 병원 내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술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도서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도서관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의학도서관으로 생각할 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설정이다(이혜영, 2018). 또한 병원도서관이 2006년에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서관연감 및 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도 관련한 현황을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에도 일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도서관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모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제중원 서재', 타 기관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설립한 후 모기관과 연계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수병원의 '마음센터도서관', 병원과 지역이 연계하여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한마음병원의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병원도서관은 현대해상, 신한카드 등과 같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홍보기사만 찾아 볼 수 있을 뿐, 관련한 운영현황 및 정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병원도서관 정책 및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병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립유형, 지원받은 사업, 공간, 장서,

인력,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조사를 기반으로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구축한 점, 전화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나, 현재 국가적 차원(도서관 연감, 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병원도서관 리스트 및 통계 현황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국외의 경우,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병원도서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병원도서관과 환자도서관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사례 연구(ALA, 1970; Green & Schwab, 1919; Justice & Stone, 2017; Loomis, 1899; Panella, 1996; Reed, 1932), 병원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연구(Duncan, 2010; Moeller & Deeney, 1982; Turner, Kabashi, Guthrie, Burkett, & Turner, 2011) 등이 진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환자교육 연구(Beschnett & Bulger, 2013; Burnham & Peterson, 2005; Mayer, 2014), 건강정보서비스 관련 연구(Butson & Pauly, 2013; Egeland, 2015; Ladd, 2016; Riedner, 2015), 병원도서관 사서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한 연구(Roth, 1978) 등이 진행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연

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에 병원도서관 및 의학도서관 등 의료분야 도서관의 개념을 분석한 연구(신영지, 노영희, 2018)와 더불어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연구(이혜영, 2018)가 진행되었다. 두 연구를 통해 병원도서관의 개념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병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 국외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 기반 환자서비스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와 국외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를 파악하는 진보적 연구가 진행되었다(이혜영, 2019a; 이혜영, 2019b). 또한, 서울시에 소재한 병원 내 도서관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때 병원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응답으로 만족도의 경우 직원, 서비스, 시설 및 환경, 장서,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는 직원, 프로그램, 장서,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신영지, 노영희, 2019).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도서관에 개념 및 법적기준에 관한 연구, 국외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병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가 전부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병원도서관 정책 및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선행연구, 정책, 지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병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도서관 관련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 환자도서관 등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병원도서관의 개념, 법적 근거, 관련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병원도서관 관련 국내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09-2013」, 「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4-2018」,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9-2023」을 분석하여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서」에서 병원도서관 및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과제를 조사하였으며, 관련한 추진실적도 함께 조사하였다.

셋째,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병원도서관은 모기관에서 필수시설로 인식하여 설립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받아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각 지원사업의 특징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병원도서관 실태조사에 앞서 병원도서

관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현재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연감이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관련 현황을 전혀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의 관련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인터넷 검색 결과, 병원 홈페이지, 홍보기사,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 및 웹 문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총 73개의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다섯째, 구축한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기반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운영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가 아닌 전화면담으로 진행한 이유는 현재 병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반영해서이다. 처음 연구 계획 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병원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후 모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병원도서관 사서 및 전담 직원이 없고, 타 부서(총무과, 사회사업팀, 홍보팀 등)에서 가끔 관리해주거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전화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별 홈페이지 및 병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병원도서관도 포함하였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시, 인터넷 상에서 병원도서관 번호를 찾을 수 없어서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관련 부서로 연

결을 부탁하였다.

- (응답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 병원도서관 봉사자, 도서관 설립 당시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 등이 응답하였다.
- (면담항목) 병원도서관의 운영 여부, 설립 연도, 운영방식, 장서 현황, 인력현황, 모기 관 지원 여부,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한계점)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해도 실제로 병원도서관 내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관련 부서로 연결해 주었는데 최초로 연결된 직원(안내데스크 직원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연결해 준 부서 직원)이 병원도서관에 대해서 모를 경우,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응답했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향후 정

확한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병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각 영역별로 분석하고, 현 실태를 반영하여 향후 병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1〉 참조).

4.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4.1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제1차 도서관종

〈표 1〉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

단계		연구내용
1단계	선행연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분석
2단계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조사 • 2009-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조사·분석 • 2017년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추진 실적 조사
3단계	병원도서관 지원사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있는 병원, 정검다리도서관, 마음카터, 아름인도서관, 꿈자람책방 등 • 지원사업별 특징 분석
4단계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의 관련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조사 실시 • 이를 통해 73개의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5단계	병원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 전화 통화를 기반으로 현황 조사 실시 • (진행기간) 2019.07.24. ~ 2019.08.19. • (응답자) 관련 직원, 봉사자 등 • (면담 내용) 운영 여부, 운영방식, 모기관 지원 여부, 사서 및 자원봉사자 여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
6단계	병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통화로 구축한 현황 분석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 제시

합발전계획(2009~2013)에서는 병원도서관 관련 추진과제가 없었다. 다만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체계수립' 추진과제의 현황 및 진단에서 지역 공공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의 연계가 미비하다는 언급만 나타났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심신 치유와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부재, 병원도서관 시설·자료 등 기준 부재, 기초 현황 조사 부족, 기증을 기반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최신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와 함께 추진과제로 1)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과 2)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가 발표되었다.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

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등이 나타났다.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로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서지원서비스 개선,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병원 특성별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등이 나타났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2019년 3월에 공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과제의 세부추진과제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발표되었다(〈표 2〉 참조).

〈표 2〉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구분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과제
1차	<p>▣ (추진과제)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진단: 지역내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미흡: 기타 공공도서관(문고, 장애인도서관, <u>병원도서관</u>,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미비
2차	<p>▣ (추진과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서지원서비스 개선 -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병원 특성별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과제	<p>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p> <p>▣ (추진과제)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과제) 특수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과제별 목표 달성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각 연도별로 병원도서관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는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별도의 추진과제가 없는 관계로 관련한 시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009년과 2010년에 한밭도서관이 관내 병원(대전중앙, 평화노인, 대전보훈, 을지, 대전선, 남양노인병원 등) 6개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읽기가 불가능한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녹음도서를 기증한 계획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경우, '특수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정책 과제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 강화'가 포함되면서, 1)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2)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추진과제가 발표되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주요 추진 내용으로 병원도서관 현황 조사와 질병관리본부 내 국립의학도서관과 연계 추진, 국립의학도서관과 협약을 통해 정보 연계 및 공유방안 마련 검토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 계획한 내용이 2016년 시행계획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과 2017년 추진실적 보고서에 해당 실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환자의 심신 치유를 위한

독서지원 서비스와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장기 입원 환자 대상 책 읽어주기 사업과 주 1회 어린이 병원학교 책 읽어주기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 외 타 추진과제에서도 병원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지역 내 각종 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2017, 2018년에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2019년 5월에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 관련 시행계획은 1)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2)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3)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등의 추진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병원 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함께 그림책 읽기 및 독후활동을 통한 독서치유프로그램, 종합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병원 순회문고 지원기관 관리 및 자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제로, 병원을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책나르미' 제공과 병원에 순회문고, 책배달/도서택배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추진과제로, 요양병원 및 양로원 방문 문해교육 및 독서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표 3〉 참조).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1차, 2차,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는 환자 및 보호자

〈표 3〉 2009-2019년 병원도서관 관련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분석

구분	추진과제명	기관	기간	추진계획 내용	추진실적*															
1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한밭 도서관	2009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도서 이용대상자 확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관내 병원 6개소 - 내용: 정상적인 읽기기능 불가능한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녹음도서를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독서편의 제공 	▶ 2008년에 50권 기증															
2차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보건 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과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실시 -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후 병원도서관 활성화 필요성, 타당성 등 연구조사 실시 •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 질병관리본부 내 국립의학도서관과 연계 추진 - 현행 국립의학도서관 협약을 통해 공공 도서관과 연계 및 공유방안 마련 검토 																
		부산 교육 협력 담당관실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입원 환자 대상 책읽어주기 - 도서관 인근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성인) 대상으로 월 1회 방문, 책읽어주기 및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 • 어린이 병원학교 책읽어주기 - 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병원학교를 주1회 방문하여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그림동화 함께 읽고 책이야기 나누기 	▶ 2014년 65회, 2015년 65회, 2016년 67회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연계강화	전라북도 문화 예술과	2017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병영·병원·소방·전경대) 4개소: 개소당 3백만원 (도서구입비) 																
	지역 내 각종 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한밭 도서관	2017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지원: 순회문고 운영 	▶ 2017년 병원도서관 3곳에 4회 제공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한밭 도서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도서관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병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6개 병원 도서관과 협력체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전라북도 문화 예술과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방문 북시터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노인요양 병원 등) 	▶ 운영 실적 확인															
3차 (2019)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대구광역시 교육협력 정책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환자(치매노인)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19	<table border="1"> <tr> <td colspan="5">[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대출건수 목표치]</td> </tr> <tr> <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 </tr> <tr> <td>585</td><td>590</td><td>590</td><td>600</td><td>600</td> </tr> </table>	[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대출건수 목표치]					2019	2020	2021	2022	2023	585	590	590	600	600	▶ 2019년 계획으로 추진실적 없음
[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대출건수 목표치]																				
2019	2020	2021	2022	2023																
585	590	590	600	600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동구 평생학습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을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책나르미' 제공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혁신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 순회문고, 책배달/도서택배대출 서비스 운영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및 양로원 방문하여, 노인대상 문해교육 및 독서역량강화프로그램 등 7건 진행 예정 																

* 출처: 각 연도별 시행계획 보고서 내 실적 현황 및 2017년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 기반 작성

또는 병원도서관과 관련해 발표된 추진과제가 없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관련한 추진과제에서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과제가 발표된 반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병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특수환경 이용자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 법 개정, 가이드라인 개발, 인식개선, 인력배치 등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의 과제가 나타났지만, 해당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책 읽어주기 서비스 운영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해당 과제에 대한 실적은 미비했지만, 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순회문고 운영,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 등이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 보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과제가 도출되었다면,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이에 시행계획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문해교육, 순회문고, 책배달 서비스 등이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병원도서관 지원사업

병원도서관의 특징 중 하나는 모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으로는 책읽는병원, 도서관이 있는 병원, 징검다리도서관, 마음센터, 아름人도서관, 꿈자람 책방, 건강+행복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었으며, 각 사업마다 지원범위, 지원 내용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병원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이 있는 병원’은 신문 청년의사와 동국제약이 의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기증받아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기증 캠페인이다. 이는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2012년 10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기수별로 의사, 교수, 개원의를 비롯한 의료진 참여를 통해 기증받을 책과, 동국제약에서 기증한 신간도서를 더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를 기증하였다. 특히, 8기부터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도서 대여 시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 대출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권당 2,000원씩 인터넷 서점의 전자화폐를 지급하여 참여를 도모하였다. 본 지원사업이 가지는 타 사업과의 차이점은 분기별로 책을 모집하여 기증받은 후 기증받은 책과 동국제약에서 기증하는 신규도서를 기반으로 중소병원을 선정하여 책을 나누어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도서 기증은 의사를 통해 기증받는다는 점에서 의사와 환자를 연계하여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징검다리도서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과 후원으로 (사)문화예술 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환자와 보호자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도서 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도별로 10곳씩 선정하여 전국에 20개 병원을 개관하였다. 징검다리도서관은 건강 관련 도서를 갖춘 치유 테마의 병원도서관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도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도서를 기부 받아 지원하였으며,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가’, ‘낱말공장 나라’, ‘배기장 전’ 등 책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책 공연과 수기공모, 시 치유 프로그램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이 가지는 차별점으로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및 도서 지원에서 나아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치유 프로그램 및 책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적 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지역사회 책 나눔, 기부캠페인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다. 사업기간 동안 징검다리도서관은 SNS를 통해 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도서 기부 홍보, 기부 이벤트, 공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 참여 통로를 마련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

셋째, ‘마음센터’는 2015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후원하고 (사)아르콘(ARCON)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컬러테라피, 음악치유 등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아동 환자들을 위한 구연동화 및 그림자 연극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병원 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센터도서관은 매년 3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서관에는 도서 1,200여 권, 책장,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과 바코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해상 블로그, 2017). 이에 2019년 6월 기준으로 12개의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 마음센터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약 1만 5,000여 권의 신규도서를 제공하였다(시사위크, 2019). 본 사업의 특징으로는 ‘지속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자격조건 및 우대조건에서 개관연도 포함 최소 5년 이상 도서관 운영 여부,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자체 운영 가능 여부, 도서관 운영에 의지 여부 등이 나타났으며, 지원도 개관 후 관리 기준 충족 시에만 2년간 도서/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 후에도 운영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넷째, 신한카드가 추진하는 ‘아름인도서관’은 다양한 세대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 어린이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독서 환경과 도서,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아름인도서관은 권장도서 지원과 친환경 독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권장도서 지원은 연령에 맞는 다양한 읽을거리와 퀘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관별 1,000권~2,000권정도의 신규도서 보급과 연령/수준별 권장도서 및 베스트 추천도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독서환경 개선 지원의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한 퀘적하고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친환경 소재의 인테리어 공간구성, 시력보호 조명, 유해방지 벽지/장판 지원, 노후된 학습기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人도서관은 사회복지·교육·보건의료·민간·공공 분야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 시 최소 3년 이상 운영 보장이 가능한지, 아름人도서관을 위한 방 형태의 단독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시공이 가능한지,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및 지속 관리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현재 아름人도서관으로 설립된 병원 내 도서관은 총 21개로 나타났다.

다섯째, ‘꿈자람책방’은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지역연계형 지원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중장년 일자리사업인 JDC 이음 일자리 사업 중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도서관이다. 꿈자람 책방은 현재 제주중앙병원과 제주한마음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2019년에 북리더스와의 제휴를 통해 체계적인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매달 20권을 책을 렌탈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징은 타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기업 및 재단이 신청한 병원을 기반으로 자격에 합당하는 병원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병원은 공간을 지원하고, 인력은 JDC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장년의 일자리 제공으로 지원하며, 기타 지역 기관(YMCA 등)이 연계하여 장서 및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신을 치유하고,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얻고, 병원도서관은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분석한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5. 병원도서관 현황조사 결과

5.1 병원도서관 지원분포도

병원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30.14%, 경기 17.81%, 경북 10.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경기권에 주로 병원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설립된 병원 수 대비 병원도서관의 수는 지역별 분포를 떠나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표 5〉 참조).

5.2 운영 여부

표본 도서관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60%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9.59%가 운영하

〈표 4〉 병원도서관 사업별 차이점 분석

구분	도서관이 있는 병원	정검다리도서관	마음센터	아름인도서관	꿈자람책방
지원 기관	신문 청년의사, 동국제약	아르콘,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아르콘, 현대해상	신한카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사업 기간	2010-2012	2012-2013	2015-현재까지	2015-현재까지	2018
지원 대상 기관	중소병원	중소병원	원내 도서관 설립 의지가 있는 병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제주도 내 병원
도서관 이용 대상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 환자,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	병원 내 환자, 보호자 및 임직원, 지역사회 주민 등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도서관 지원 내용	•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 도서 지원	•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 도서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SNS 운영	•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 문화치유 프로그램 운영 • 추천도서 공모전 • 유지보수 지원	• 기관특성에 맞는 목적별 권장도서 지원 • 친환경 소재 인테리어 시공으로 독서 환경 개선	•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 도서 지원
지원 성향	단기성 지원	기간 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기간 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단기성 지원	지속성
선정 기준	-	• 5평 이상 도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보유 • 구축 후 운영 가능한 자원 봉사자 여부	• 5평 이상 도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보유 • 최소 5년 이상 운영 보장이 가능한 기관	• 최소 3년 이상 운영 보장이 가능한 기관 • 방 형태의 단독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시공 가능 기관	-
차별성	• 의사의 책을 기증받아 지원 • 의사-환자간의 관계 개선 기여 • 기증자에게 전자화폐로 사례 • 바코드시스템 도입	• 사업 지원 기간 내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 SNS를 통해 기부 참여 통로 및 나눔 문화 확산 • 대중의 참여	• 개관 후 관리 기준 충족 시 2년간 유지보수 지원 • 선정 후 운영 점검 실시	• 지원 가능한 평수별로 테마와 지원 수 차별화	•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비고		→ 주최가 같은 아르콘으로 지원 기관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확장된 사업 같이 유사한 점이 많음		병원도서관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님	

〈표 5〉 병원도서관 지역별 분포

구분	N	%	구분	N	%
서울	22	30.14	부산	2	2.74
경기	13	17.81	경남	1	1.37
인천	3	4.11	경북	8	10.96
강원	5	6.85	전남	3	4.11
대전	2	2.74	전북	3	4.11
충남	5	6.85	제주	3	4.11
충북	3	4.11	계	73	100.00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운영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서 배치 및 지속적인 도서 확보, 도서관으로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관리 없이 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모두 신한 카드 및 현대해상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기간 이후 모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및 장서 확보,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병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간을 개선하고 도서를 지원 받아 설립되지만, 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예산 확보 부재, 담당 인력 및 부서 부재, 병원 도서관의 필요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설립되는 병원도서관은 대부분 도서관이라기 보단 문고수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도서관을 설립 할 경우, 향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기

관과의 예산, 인력배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5.3 병원유형 및 설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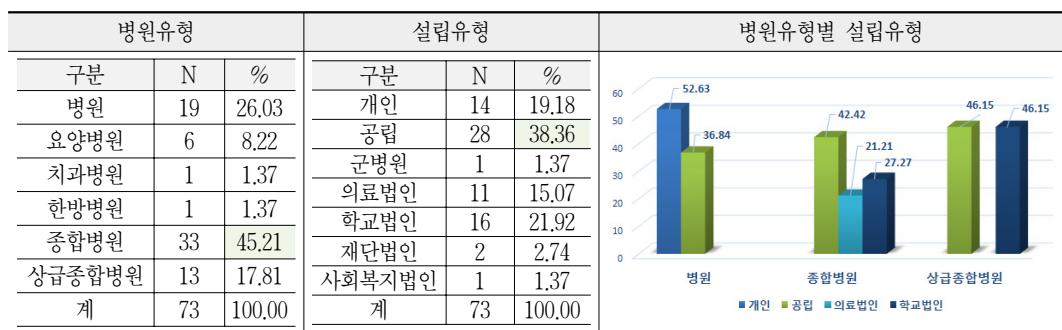
병원도서관을 설립한 의료기관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유형과 설립유형을 조사하였다. 먼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세부적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9). 또한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나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신영지, 노영희, 2018; 이해영, 2018).

조사 결과, 병원유형은 주로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은 공립, 학교법인, 개인이 주를 이루었다(〈표 7〉 참조). 특히 공립 및 학교법인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대다수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병원도서관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종합병원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표 6〉 병원도서관 운영여부

구분	N	%
운영하고 있음	53	72.60
운영하지 않음(폐관)	7	9.59
확인 불가	13	17.81
계	73	100.00

〈표 7〉 병원유형 및 설립유형



병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 기준으로 국내 종합병원 중 약 10% 정도가 병원도서관을 설립하고 있었으며,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약 30% 정도가 병원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병원을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 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향후 병원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5.4 병상 수

관종에 따라 봉사대상 인구 또는 봉사기관의 크기 등 일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서관의 면적, 장서 수, 사서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학생 수, 병영도서관은 부대크기(대대급, 사단급 등), 교도소도서관은 수용인원, 전문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인구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도서관기준」에서 병상 수에 따라 도서관의 면적, 장서 수, 사서배치 기준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표본 도서관의 규모, 장서 규모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 병상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0~300 미만의 병상 수를 갖춘 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0 이상, 300~500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도서관이 약 20평(병상수 300 미만) 또는 40평(병상수 500~1,000)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한 병원도서관 중 면적 크기를 알 수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른 규모의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전주수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258개로 66㎡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병원도서관의 규모가 72.72㎡로 나타나 병상 수 대비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대학교 병원 제중원 서재의 경우 약 100㎡의 규모로 나타나(유수인, 2016), 국내 병원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

고 있지만 병상 수 대비 규모가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도서관들은 병원 내 여분 공간, 타 공간(회의실 등)의 일부 영역에 설치, 휴게공간에 서가배치 등 병원의 규모에 비례한 도서관 공간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관련 법 제정 및 기준 개선 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수 대비 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의 공간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상 수 대비 도서관 공간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병원도서관의 설립 규모에 유연함을 제공함으로써 병원도서관의 수적 보완을 1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5.5 설립연도

병원도서관의 연도별 설립현황은 기업 및 재

단 등에서 실시하는 병원도서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표 9〉 참조). 병원도서관 설립 및 도서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2010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병원도서관 설립 비율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여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이 병원도서관 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없어지면¹⁾ 해당 연도의 도서관 개설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 또는 모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한국도서관연감, 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서도 현황을 확인 할 수 없다. 비슷한 유형으로 모기관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연감 및 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국방부

〈표 8〉 병상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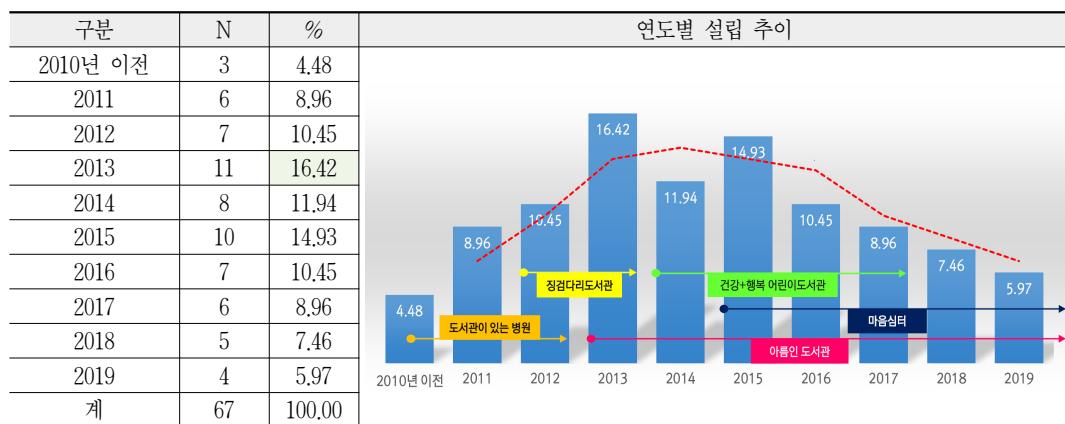
구분	N	%	병상 수에 따른 병원도서관 면적 기준*				
			(300미만) 66㎡ 이상	(300~500 미만) 99㎡ 이상	(500~1,000 미만) 132㎡ 이상	(1,000~1,500 미만) 165㎡ 이상	(1,500 이상) 198㎡ 이상
100 미만	7	10.00	31	11	20	6	2
100-300 미만	24	34.29					
300-500 미만	11	15.71					
500-700 미만	7	10.00					
700-900 미만	7	10.00					
900 이상	14	20.00					
계	70	100.00					

* 한국도서관기준 내 병원도서관 기준 참조(한국도서관협회, 2013)

** 무응답: 3

1) 지원 사업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 '정검다리도서관' 사업의 경우 2012-2013년 기간 동안에만 진행된 사업임.

〈표 9〉 병원도서관 설립연도 현황



* 무응답: 6

및 법무부에서 관련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병영도서관은 국방부에서 2003년부터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장윤금, 이지수, 이혜영, 전경선, 2018).

병원도서관 설립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병원이라는 모기관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써 현재 공립 병원보다 사립 병원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할 수 없다. 더불어 병원도서관의 필요성 및 설립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며, 병원도서관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와 예산 확보, 인력 배치 등의 어려움으로 모기관에 의해 설립되기 보다는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설립되는 경우 공공도서관으로 설립되지 않으며, 국가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설립된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의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도 국방부와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병원도서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의료기관 내 설립된 병원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둘째, 병원도서관 의무적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병원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실시와 그 외에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6 지원사업 현황

현재 설치된 병원도서관의 타 기관 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93%의 도서관이 지원을 받아 설립되거나, 리모델링 및 도서지원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카드에서 추진중인 ‘아름人도서관’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이 설립 및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마음心터도서관’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에서 지원한 ‘징검다리도서관’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름人도서관과 마음心터도서관 사업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도서관 설립 및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연계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도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관 공간은 병원에서 제공하며, 인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사업인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을 통해 사서를 배치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모형

은 지역의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도 창출하는 반면, 병원에서는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 등의 부담감이 없고, 타 사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좋은 운영 모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단발성으로 재단 또는 지역 교육청,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표 10〉 참조).

5.7 인력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현황은 병원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첫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은 4곳으로만 나타나 매우 드물었다. 서울대병원 제중원서재와 전주수병원은 병원도서관으로써 정사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주한마음병원의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은 정사서는 아니지만 지

〈표 10〉 사업별 지원 여부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N	%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	19	26.03
본지, (주)동국제약		6	8.22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징검다리도서관	10	13.70
현대해상화재보험,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마음心터도서관	12	16.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7	9.5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이음 일자리 사업	2	2.74
그 외	도서문화재단씨앗	1	1.37
	책읽는사회문화재단	1	1.37
	서울시교육청	1	1.37
	대전 대덕구 안산도서관	1	1.37
	넥슨, 푸르메재단	1	1.37
	한국 P&G	1	1.37
계		62	100.00

〈표 11〉 병원도서관 인력 현황

구분	N	%	비고												
사서 배치	4	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병원 제증원서재, 전주수병원 마음센터도서관,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 네슨어린이도서관 특히,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이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중장년층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 												
병원 타 부서 직원	3	6.67	• 원무과, 총무과, 사회사업팀(실), 홍보실, 자원봉사팀												
자원봉사자	17	37.78	<table border="1"> <tr> <td>병원 내</td> <td>• 병원 자원봉사팀에서 배치</td> </tr> <tr> <td>외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십자봉사자, 지역 봉사자 지역 내 노인 일자리 관련 자원봉사자 </td> </tr> </table>	병원 내	• 병원 자원봉사팀에서 배치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십자봉사자, 지역 봉사자 지역 내 노인 일자리 관련 자원봉사자 								
병원 내	• 병원 자원봉사팀에서 배치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십자봉사자, 지역 봉사자 지역 내 노인 일자리 관련 자원봉사자 														
병원직원+자원봉사자	1	2.22	• 예산 관리 및 장서 구입 등은 병원직원이 진행												
관리 및 운영 인력 없음	19	42.22	• 가끔 도서 파손이 심할 경우 관리(가까이에 위치한 부서)												
그 외	2	4.44	•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병원 내 도서관 인력현황	<table border="1"> <tr> <td>인력 없음</td> <td>42.22</td> </tr> <tr> <td>자원봉사자</td> <td>37.78</td> </tr> <tr> <td>사서 배치</td> <td>8.89</td> </tr> <tr> <td>병원 타 부서 직원</td> <td>6.67</td> </tr> <tr> <td>그 외</td> <td>4.44</td> </tr> <tr> <td>병원직원+자원봉사자</td> <td>2.22</td> </tr> </table>			인력 없음	42.22	자원봉사자	37.78	사서 배치	8.89	병원 타 부서 직원	6.67	그 외	4.44	병원직원+자원봉사자	2.22
인력 없음	42.22														
자원봉사자	37.78														
사서 배치	8.89														
병원 타 부서 직원	6.67														
그 외	4.44														
병원직원+자원봉사자	2.22														
병원도서관 인력현황	<table border="1"> <tr> <td>1명</td> <td>71.11</td> </tr> <tr> <td>2명</td> <td>15.56</td> </tr> <tr> <td>3명</td> <td>2.22</td> </tr> <tr> <td>5명 이상</td> <td>2.22</td> </tr> </table>			1명	71.11	2명	15.56	3명	2.22	5명 이상	2.22				
1명	71.11														
2명	15.56														
3명	2.22														
5명 이상	2.22														
	<p style="text-align: right;">담당 직원 및 사서 배치 비율 91.11%</p>														
의학도서관 인력현황*															

* 노영희, 신영지 (2019), ** 무응답: 8

역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현재 국내 병원도서관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을 만큼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서유무에 따른 병원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병원도서관이 대다수 나타났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크게, 병원 내 자원봉사자와 외부 자원봉사자로 구분되었다. 병원 내 자원봉사자는 병원 자원봉사팀에서 도서관으로 배정한 경우이고, 외부 자원봉사자는 지역 내 봉사자, 적십자 봉사자, 지역 노인 일자리의 일환 등으로 배치되어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들은 도서관 환경 미화

관리 및 도서대출 장부 작성, 도서 관리, 병설 북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이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들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향후 병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일부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서 및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지만, 병원 내 부서에서 주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업무를 맡아 장서 구비 및 도서 관리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병원도서관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무과, 총무과, 사회

사업팀, 홍보실 등 발생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분업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병원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부서가 필요에 따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이 병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

그러나 병원도서관 인력 현황으로 ‘관리 및 운영 인력 없음’이 4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문제는 병원 내 인력 부족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현재 병원 내 의료인력과 부서 내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김상기, 2018), 병원도서관을 위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서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 내 타 업무도 겸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영희, 신영지, 2019).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사서 또는 전담 인력 배치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점차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에서 자리 잡으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 지역 내 중장년 총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인력 배치 등 보다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공간

병원도서관의 공간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만을 위한 단독 공간을 보유한 것으로,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온전히 서가, 열람, 도서 대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도서관 면적은 병원에 따라 5평에서 30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측은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해 병실을 개조하거나 회의실, 휴게실 및 놀이방 등을 리모델링함으로써 단독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 공간 내의 일부 영역을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해당 형태의 도서관은 휴게공간, 회의실, 놀이방, 강당, 원목실 등에 주로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휴게공간 내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놀이방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형 공간에 서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병원 내 여분 공간의 벽면이나 진료실 근처 복도, 로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공간유형은 인력 구성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서가 배치된 도서관은 모두 단독공간을 가진 도서관이었으며, 타 공간 내 설립된 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높았고, 개방형에 설치된 병원도서관은 인력배치가 없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의 공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타 관종의 경우 대부분 도서관 면적에 따른 규모의 차이만 나타나는 반면, 병원도서관은 병원 내 상황에 따른 여러 형태의 공간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병원 내 진료공간 부족 현상(이지현, 2018; 혀지윤, 2016),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조민규, 2018) 등으로 병원도서관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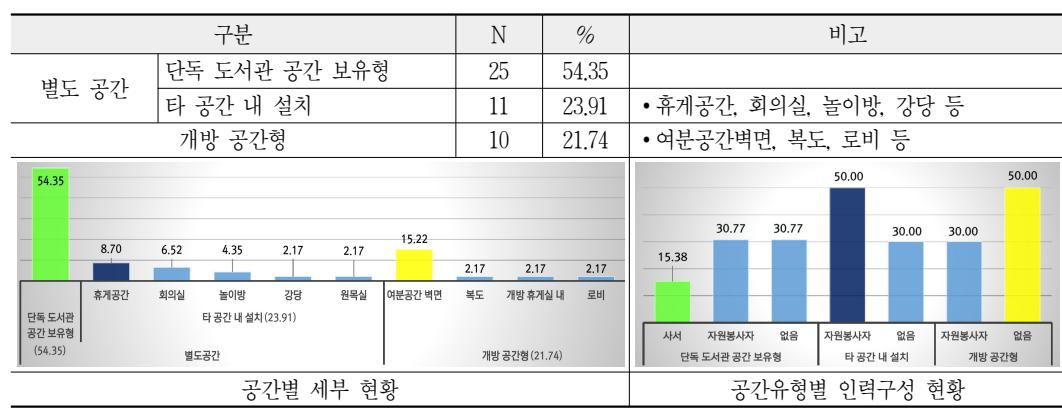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도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기존에 사용성이 낮은 회의실 또는 서가배치가 가능한 휴게공간, 여유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느 공간유형까지 병원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벽면에 서가설치를 통한 도서 비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간 내 서가설치 및 도서 비치를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지, 병원 내 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정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병원도서관 설립 시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원도서관은 환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치유공간, 정신 건강 함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병원도서관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단독 공간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다(〈표 12〉 참조).

5.9 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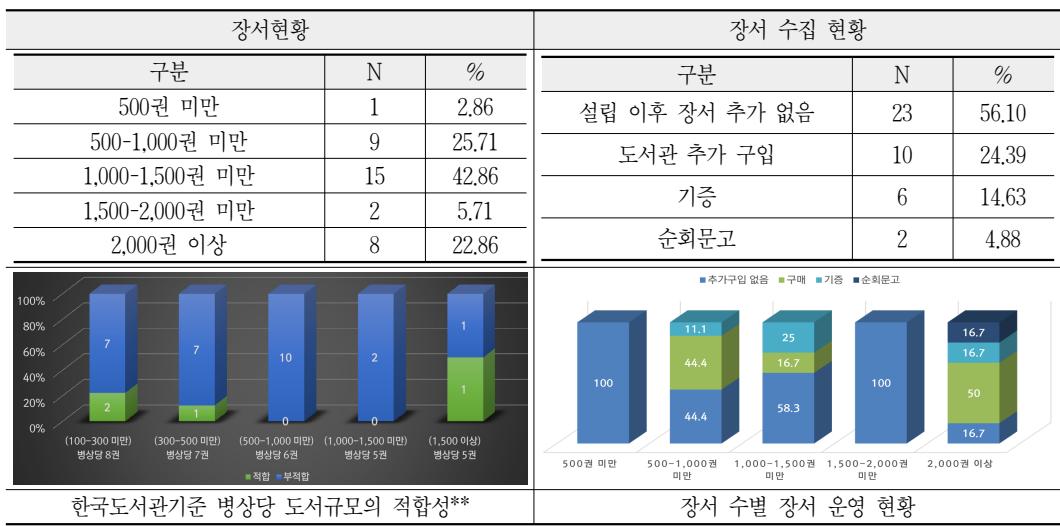
조사한 병원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000-1,500권 미만 42.86%, 500-1,000권 미만 25.71%, 2,000권 이상 2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서 규모는 지원사업과 연관지어 해석 할 수 있다. 먼저, '아름人도서관' 사업과 '마음心터도서관'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장서 1,000권을 지원하는데, 2개의 사업을 통해 설립된 도서관이 많다보니 1,000-1,500권 미만의 장서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500-1,000권 미만은 '건강+행복 어린이도서관' 사업의 지원으로 500-600여 권의 도서를 지원받아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권 이상의 도서를 가진 도서관들은 지원 받은 도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병상수별 적합한 장서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은 12% 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3〉 참조).

〈표 12〉 병원도서관 공간 유형별 현황



* 무응답: 7

〈표 13〉 병원도서관 장서 현황



* 무응답: 18; ** 해당 분석에서 300미만 병상인 병원은 제외

더불어, 장서 추가 구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립 이후 장서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도서관이 56.10%로 나타나 설립 시에 지원 받은 도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장서를 구매하고 있는 도서관은 24.39%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에 병원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 기증 또는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순회문고를 통해 장서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의 장서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이다. 현재 병원도서관들은 대부분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서 구입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장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병원도서관 장서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병원 내 병원도서관의 인식 및 운영현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장서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순회문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 병원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장서를 대출받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서를 순환하여 장서의 최신성 및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방문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기별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캠페인은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일년에 1회 또는 상반기/하반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병원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기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최는 지역 시에서, 주관은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맡아 진행하며, 수집한 기증도서는 지역 내 병원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다. 이러한 캠페인은 병원도서관의 장서 확보 뿐만 아니라 병원도서관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10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재 병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극히 드문 것을 조사되었다. 국내 병원도서관의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는 제중원서재, 전주수병원 등에서만 몇몇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장 기본적인 도서대출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장부를 통해 수기로 대출서비스가 실시 중이었으며, 그 외 특정 몇 도서관에서만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제중원서재만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서검색, 신간도서 소개, 온라인참고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병원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제중원서재는 병마와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작가를 초대해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하였다. 전주수병원은 2017년 개관 기념과 함께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홍보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모기관의 지원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공형태로,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현대해상은 ‘마음센터도서관’ 설립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 치유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

고 있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초정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벤트성으로 공모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특정 병원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유로 모기관인 병원이 바라보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다. 국내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대병원의 제중원서재와 전주수병원의 마음센터도서관을 보면, 모두 모기관이 병원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중원서재는 임대를 통한 수익보다는 공공기관으로써 환자들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전문사서, 홈페이지까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주수병원의 마음센터도서관은 타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였으며, 정사서 채용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모기관 지원 하에 공모전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도서관들이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부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표 14〉 참조).

6.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선행연구, 정책, 지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병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14〉 병원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서비스	대출서비스	• 수기 장부를 통한 대출서비스 실시(자원봉사들의 주 업무)
	북카트서비스	• 몸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북카트에 책을 담아 병실로 찾아가는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 서울대병원 제증원서제 : 국내 병원도서관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서검색, 신착도서안내, 온라인 서비스 실시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 병마와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하여 작가를 초대,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 전주수병원 마음센터도서관 :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2차례 걸쳐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문화치유 프로그램	• 마음센터도서관의 지원기관인 현대해상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 책 속의 좋은 글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독후감 공모전 및 시상	• 전주수병원 마음센터도서관 : 모기관의 지원을 받아 독후감 공모전 및 시상 실시
	지역 연계 재능기부	• 충북대병원 바람의도서관 :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캐리커처 그려주기 실시
	아트테라피 강좌	• 광명인병원 마음센터도서관 : 그리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성취감을 높이고자 함

그 결과, 첫째, 병원도서관 설립은 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대다수 설립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병원도서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부족하며, 공간 확보 및 인력배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원이 끝난 후에는 추가로 장서를 구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및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대부분 유지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단독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타 목적 공간 내 서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개방형 휴게실 및 복도 벽면, 여분공간 벽면에 서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경우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이 없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운영중인 병원도서관 중 사서를 배치한 도서관이 4곳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배치된 도서관은 국내 병원도서관 우수사례를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서의 경우, 설립 당시 지원 받은 도서 외에는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유지하는 도서관이 과반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관은 모기관 및 타 지원금을 조달하여 도서를 구입하거나,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순회문고서비스, 기증 등을 통해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특정 도서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종합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시사점
운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72.60%, 운영안함 9.59% 수차상으로 운영 비율이 높아 보이나, 대다수 관리 없이 유지만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모기관과의 연계 필요하며, 이는 지원 사업 지원 시, 사전에 협의 필요
병원 유형 및 설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유형: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남 설립유형: 공립, 학교법인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 병원도서관 설치 법안 제정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병원 대상으로도 의무적 병원도서관 설립 법안 필요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관련 평가지표 추가 방안 고려
병상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법적 기준 부재하며 「한국도서관기준」에 제시된 병상 수 기준은 현 실정에 반영되기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도서관 관련 법적 기준 필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고려
설립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부터 병원도서관 설립 지원사업으로 병원도서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2013년과 2015년에 다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병원도서관은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설립되는 경향이 있음 보건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및 운영 인력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42.22%)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음(3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최소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필요 - 이를 위한 법 개정 및 지원제도 필요 우선적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 순회사서, 관련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지역 내 인력 활용 필요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 새로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시, 기존 공간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고려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반수가 단독 도서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5평-30평 미만 다양한 규모로 나타남 그 외에 타공간 내 설치되거나 복도 및 로비, 여분공간 벽면에 서가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병원 특성 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시 지원 받은 장서 외에 추가적인 장서 확보가 대다수 안되고 있는 실정 - 기증을 받거나, 지역 공공도서관 연계를 통해 순회문고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및 사업 필요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순회 문고서비스 이용 분기별 기증캠페인 실시
서비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병원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서관으로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음 - 서비스: 대출서비스, 북카트서비스 등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적으로 지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시 향후 병원 내 특색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 진행 필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병원도서관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국가적 측면과 도서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6.1 국가적 측면

향후 병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측면에서 우선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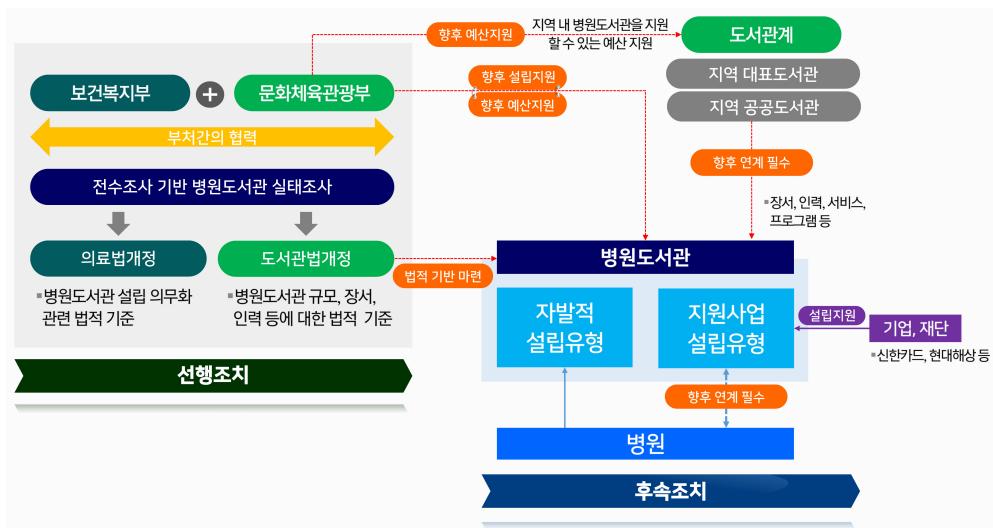
로 병원도서관 법적 기준 개정, 부처간 협력, 지원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와의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병원도서관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병원도서관의 경우, 병원을 모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수조사 시 병원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국내 병원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병원도서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병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시행령」에 관련한 규모, 장서, 인력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병원도서관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병원도서관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도서관 기준에서는 병원도서관의 규모를 병상 수를 기반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병원의 공간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상 수 대비 도서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병원도서관의 설립 규모에 유연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종합병원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병원에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원도서관 정책 및 지원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지원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도서관이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병원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도 병원도서관이 설립할 수 있는 제도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 지원, 인력 배치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 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향후 병원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6.2 도서관계 측면

병원도서관이 향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에서도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 독립적인 필수시설로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도서관계 내에서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병원에서 신한카드, 현대해상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설립 시에만 공간 리모델링 및 장서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초기 비용을 지원사업을 통해 절감하



<그림 1> 향후 병원도서관 운영 모형(안)

는 것은 좋지만, 모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서 비용, 인력비용,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유지 및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모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필수적이지만, 병원도서관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도서관 또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병원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서지원(순회문고서비스 등), 인력지원(순회사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국내 병원도서관 정책 및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에 수집된 7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설립방법, 지원받은 사업, 공간유형, 장서, 인력,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는 아직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의 필요성 및 설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며, 국가적 측면에서도 병원도서관이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도서관은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몸과 마음의 동시 치료로 치료 효과 상승,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계발로 사회복귀 후 적응력 제고, 폐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제공, 환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병원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병원의 인지도 상승(타 병원과의 차별성), 의료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폐려다임 변화, 병원 내 문화복지 증진 등의 이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병원도서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적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을 반영한 병원도서관 기준 제정 및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법 개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병원 내 설립된 환자 및 보

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 병원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병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hira.or.kr>
- 김상기 (2018). ‘병원 인력부족 → 노동조건 악화 → 이직 → 인력부족’…지독한 악순환. 라포르시안. Retrieved from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54>
- 노영희, 신영지 (2019).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61-9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6.6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4-2018.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백원근 (2019.3.29). 병원에서 책과 만나는 감동 선물하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7874.html#csidxe61be3a9e1a4bd1a5f9ecb1e8796f03>
- 시사위크 (2019. 6. 27). [현대해상의 선행] 환자 위한 ‘마음·터’ 도서관 개관. Retrieved fr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26>
- 신영지, 노영희 (2018).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개념 및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37-263.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12.237>
- 신영지, 노영희 (2019). 병원 내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30(3), 291-3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291>
- 아름人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08.21.]. <<https://arumin.shinhancard.com/>>.

- 연합뉴스 (2018. 8 15). 美미네소타 ‘메이요 클리닉’, 3년연속 ‘미국 최고병원’ 등극.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5028300009>
- 유수인 (2016). 본관 1층 쓸쓸한 수의 대신 도서관 설치. *한국의약통신*. Retrieved from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5>
- 이지현 (2018). “외래공간 숨통”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오픈 임박. *메디칼타임즈*. Retrieved from <http://www.medicaltimes.com/Users/Academy/NewsView.html?ID=1120535>
- 이혜영 (2018).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 29(4), 179-20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179>
- 이혜영 (2019a).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환자서비스 유형 및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 30(2), 86-11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2.089>
- 이혜영 (2019b). 국외 병원도서관에서의 환자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서비스 사례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195-22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195>
- 장윤금, 이지수, 이혜영, 전경선 (2018).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21-3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21>
- 조민규 (2018). [기자수첩] 의료기관 부대사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쿠키뉴스*. Retrieved fr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24248
- 정검다리도서관(아르콘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arcon.or.kr/portfolio/950>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www.bookreader.or.kr/working9.html>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허지윤 (2016). 공간부족 따른 효율성 절실 강동경희대병원. *데일리메디*. Retrieved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2951>
- 현대해상 공식블로그 (2017. 8. 7).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센터’ 개관. Retrieved from <https://blog.hi.co.kr/1812>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Standards for library service to health care institutions.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eschnett, A., & Bulger, J. (2013). Patient education and the hospital library: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3(1), 42-46.
<https://doi.org/10.1080/15323269.2013.743350>
- Burnham, E., & Peterson, E. B. (2005). Health information literacy: A library case study. *Library Trends*, 53(3), 422-433.
- Butson, L. C., & Pauly, R. R. (2013). A librarian's role in enhancing patients' knowledge and self-advocacy.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3(4), 362-372.
<https://doi.org/10.1080/15323269.2013.834194>

- Duncan, M. K. (2010). Creating bibliotherapeutic libraries for ped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otential contributions of a cognitive theory of traumatic stres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1), 25-27. <https://doi.org/10.1016/j.pedn.2008.08.001>
- Egeland, M. (2015). Hospital librarians: From consumer health to patient education and beyond.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5(1), 65-76. <https://doi.org/10.1080/15323269.2015.982944>
- Green, E., & Schwab, S. I. (1919). The therapeutic use of a hospital library. *Hospital Social Service Quarterly*, 1(3), 147-157.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84).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disabled people in the community. The Hague: The Federation.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0).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Hague: IFLA Headquarters. Retrieved from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professional-reports-61?og=8708>
- Justice, A. V., & Stone, S. S. (2017). Service and synergy: Four professions, one focus at the learning center.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21(3), 239-250. <https://doi.org/10.1080/15398285.2017.1331679>
- Ladd, D. (2016). Health and wellness programs in a patient library: Program development and brief assessment.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6(3), 233-239. <https://doi.org/10.1080/15323269.2016.1188039>
- Loomis, M. L. W. (1899). Plan for a hospital library. *Library Journal*, 24(3), 110.
- Mayer, S. H. (2014). Redesigning services in a patient education resource center setting: A DMAIC quality improvement project.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4(2), 140-148. <https://doi.org/10.1080/15323269.2014.888513>
- Moeller, K. A., & Deeney, K. E. (1982). Documenting the need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Results of a community survey.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70(2), 236-239.
- Panella, N. M. (1996). The patients' library movement: An overview of early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organized libraries for hospital patient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1), 52-62.
- Reed, E. W. (1932). Establishment and value of the hospital library.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34, 674-682.
- Riedner, M. B. (2015). Librarians' role as part of the care team for alzheimer's patient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9(2), 143-147.

<https://doi.org/10.1080/15398285.2015.1026712>
ROR 흠페이지. Retrieved from <https://www.reachoutandread.org>
Turner, A., Kabashi, A., Guthrie, H., Burkett, R., & Turner, P. (2011). Use and value of information sources by parents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28(2), 101-109. <https://doi.org/10.1111/j.1471-1842.2011.00935.x>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k, Won-geun (2019). I wish you a touching present to meet the book at the hospital.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7874.html#csidxe61be3a9e1a4bd1a5f9ecb1e8796f03>
- Chang, Yun-keum, Lee, Ji-su, Lee, Hye-young, & Jeon, Kyung-sun (2018). Current operating structur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librarie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21-3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21>
- Cho, Min-kyu (2018). [Reporter's Handbook] How much medical institution supplementary business should be allowed. Cookie News. Retrieved fr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24248
- Heo, Ji-yoon (2016). Kangdo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in desperate need of efficiency due to space shortage. Daily media. Retrieved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2951>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Blog (2017, August 7). Opening of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Library 'Mind Heart Site'. Retrieved from <https://blog.hi.co.kr/1812>
- Kim, Sang-ki (2018). 'Hospital staff shortage → deteriorated working conditions → turnover → labor shortage'… A vicious cycle. Retrieved from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54>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Lee, Ji-Hyun (2018). "Outpatient space breath" imminent open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edical Times. Retrieved from <http://www.medicaltimes.com/Users/Academy/NewsView.html?ID=1120535>
-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08). First libra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 2009-2013. Seoul: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19). Third libra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2019-2023. Seoul: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Performance of the 2nd librar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2017 implementation plan.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oh, Young-Hee, & Shin, Young-Ji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61-96.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6.61>
- Rhee, Hey-Young (2018). Guidelines and status of hospital library in korea: For patients and carer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179-20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179>
- Rhee, Hey-Young (2019a). Types and status of patient services based on hospital library guideline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2), 86-11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2.089>
- Rhee, Hey-Young (2019b). A case study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 for patient users in overseas hospital librarie.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195-22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195>
- Shin, Young-Ji, & Noh, Young-Hee (2018). A study on the concept and policy analysis of library related to medical fiel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237-263.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12.237>
- Shin, Young-Ji, & Noh, Young-Hee (2019).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and demand survey of libraries in hospital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291-31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3.291>
- Sisaweek (2019, June 27). [Modern maritime precedence] Opening of the Mind Heart Ruins Library for Patients. Retrieved fr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26>
- Yonhap News (2018, August 15). Mayo Clinic, Minnesota, USA, tops US hospital for three consecutive years.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5028300009>
- Yoo, su-in (2016, August 8). Install a library o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building instead of a strong profit. korea pharmaceutical news agency. Retrieved from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5>

[부록] 운영중인 병원도서관 리스트

번호	지역	도서관명	병원명 (모기관)	병원구분	설립구분
1	강원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강원도 원주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2	강원	속초의료원 작은도서관	강원도 속초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3	강원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상급종합	학교법인
4	강원	영월의료원 작은도서관	강원도 영월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5	경기	광명인병원작은도서관	광명인병원	병원	개인
6	경기	국군양주병원작은도서관	국군양주병원	병원	군병원
7	경기	성안드레아 의학도서실	성안드레아병원	요양병원	재단법인
8	경기	수지요양병원 도서관	(의) 수지의료재단수지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법인
9	경기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가천대 길병원	상급종합	의료법인
10	경기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11	경기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합병원	학교법인
12	경기	작은 도서관	서울나우병원 평촌점	병원	개인
13	경기	한마음도서관	시흥 시화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14	경기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의료법인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15	경남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진주 제일병원	종합병원	개인
16	경북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칠곡경북대병원	상급종합	공립
17	경북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안동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18	경북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여성아이병원	병원	개인
19	경북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포항 성모병원	종합병원	재단법인
20	경북	울진군의료원 행복한 도서관	울진군의료원	병원	공립
21	경북	정검다리 도서관	이순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법인
22	경북	휴게도서실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23	대전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	학교법인
24	부산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부산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25	서울	경희의료원어린이도서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학교법인
26	서울	꿈이 있는 녹색도서관	서울재활병원	병원	사회복지법인
27	서울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요양병원	공립
28	서울	병원학교 어린이 도서관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상급종합	학교법인
29	서울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병원	공립
30	서울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병원	공립
31	서울	제중원 서재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공립
32	서울	정검다리 도서관	한림대학교 현강성심병원	종합병원	학교법인
33	서울	정검다리 도서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공립
34	서울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서울바른세상병원	병원	개인
35	서울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서울은평병원	병원	공립
36	서울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종합병원	학교법인
37	인천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인하대병원	상급종합	학교법인
38	전남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공립
39	전남	아름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회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공립
40	전남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여수한국병원	병원	개인
41	전북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42	전북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의료법인석천제단고창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43	전북	현대해상 마음·터 도서관	전주수병원	병원	개인
44	제주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45	제주	꿈자람 책방	제주중앙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
46	제주	햇살 좋은 한마음 도서관	한마음병원	종합병원	개인
47	충남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48	충남	원내도서관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종합병원	학교법인
49	충남	이화병원 작은도서관	이화병원	병원	개인
50	충남	이화페닉스요양병원 작은도서관	이화페닉스요양병원	요양병원	개인
51	충남	정검다리 도서관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공립
52	충북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공립
53	충북	바람의 도서관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공립